

《율리시스》 재개정판 선보인 김종건 전 고려대 교수

## 우리 시대 진정한 지식인의 표상을 만나다

“나는 《율리시스》 속에 굉장히 많은 수수께끼와 퀴즈를 감추어 두었기에, 앞으로 수 세기 동안 대학교수들은 내가 뜻하는 바를 거론하기에 분주할 것이다.”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1882~1941)가 1922년 프랑스에서 《율리시스》를 처음 선보이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다. 의식의 흐름과 내면의 독백을 종횡으로 활용하며 종래 소설 형식을 근본적으로 뒤엎은 획기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던 《율리시스》는, 그의 말마따나 지금도 전 세계 문학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주인공 역시 제임스 조이스의 수수께끼와 퀴즈에 매료되어 자신의 한 평생을 오로지 ‘제임스 조이스’라는 이름에 걸고 산 사람이다. 김종건 교수(전 고려대 교수·영문학)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3월, 《율리시스》 재개정판을 선보인 김종건 교수를 만나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세계와 《율리시스》 번역에 얽힌 김 교수의 학문 인생을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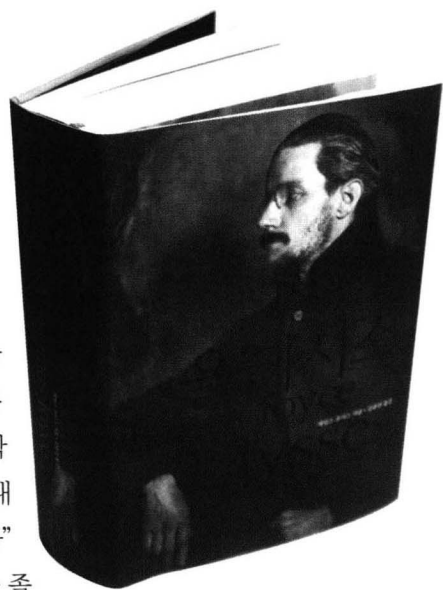
### 힘이 있으면 또 번역할 생각

김종건 교수가 제임스 조이스와 처음 조우한 것은 서울대 대학원 재학 시절, 영국인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강의하던 레이너(Rainer) 교수에 의해서이다. 김 교수는 “그의 첫 강의가 한

국에 《율리시스》를 처음 소개한 순간이었다”고 회고하면서 “그때 난해하기 때문에 인내를 요구하는 《율리시스》를 연구하는 것과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을 연구하는 것이 ‘학자다운 것’이고 그게 내 ‘본연’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렇게 석사 졸업

논문으로 《율리시스》를 쓰게 되었고, 레이너 교수와 교류하면서 첫 번째 번역본이, 김 교수가 30대 초반이던 1968년에 정음사를 통해 선보였다. 김 교수는 초판 번역의 텍스트로 삼았던 책을 찾아 기자에게 보여주며 “비록 오류가 많은 책이지만 기념으로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책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히 적힌 김 교수 메모가 세월을 따라 희미해졌지만 그의 노력만큼은 살아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다시 김 교수는 제임스 조이스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 털사(Tulsa)대학교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새로운 제임스 조이



스 문학의 세계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다. 김 교수는 “《울리시스》와 제임스 조이스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더 어렵다”는 말로 제임스 조이스를 연구하는 기쁨을 표현했다.

귀국하던 해인 1977년부터, 1922년 프랑스 셰익스피어서적점 판과 제임스 조이스의 원문을 대조해 5천여 개의 오류를 바로 잡은 독일의 가블러(gabler) 판 《울리시스》를 가지고 다시 번역을 시작했다. 영어에 익숙지 않은 프랑스인들의 편집을 거친 초판으로 작업했기에 김 교수 역시 마음의 빔을 가지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녹록치 않은 작업. 결국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결국에는 《제임스 조이스 전집》(전6권)이라는 이름으로 1988년에 범우사에서 선보였다.

“이제 또 다른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김종건 교수는 “세 번째로 신판본(3정판)을 출간”했다. 김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조이스의 작품은 끊임없는 해석의 다면성을 내포하고 있거니와, 돌아서면 또 다른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울리시스》라는 작품이 갖는 “의미의 다의성과 모호성, 다양한 문체의 동원과 적용, 끊임없는 언어유희는 이 작품의 번역에서 해결해야 할 영원한 과제요,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을 마치고 새 판본이 나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건만, 김 교수는 “제임스 조이스 작품에는 번역의 결정본은 없다고 생각한다. 3판이 나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아쉽다”고 말한다. 그리고 덧붙였다. “힘이 있으면 또 번역할 생각”이라고.

### 대중은 대중의 독법으로 쉽게 읽을 수 있다

사실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은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 문학 작품의 어휘가 2만 자 내외. 그러나 제임스 조이스의 《울리시스》는 3만 자, 전 세계 50여 개국의 언어를 혼용해 작품을 완성한 《피네간의 경야》는 6만 4천 자에 이른다. 김 교수의 표현을 빌면 제임스 조이스는 “셰익스피어 이후 최대의 언어의 왕이며 마술사”인 셈이다. 그만큼 신조어도 많고, 사전에 없는 단어도 많다. 이는 결국 제임스 조이스 문학의 본질인 모호성으로 귀결된다. 때문에 제임스 조이스를 연구하는 후대의 학자들 간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제임스 조이스의 “수 세기 동안 대학교수들은 내가 뜻하는 바를 거론하기에 분주할 것”이라는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울리시스》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1904년 6월 16일, 단 하루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생각의 무한한 발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오늘을 담담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내일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더더욱 가치는 있는 작품임을 김 교수는 강조한다.

난해하기로 소문난, 그리고 세 번째 신판본의 경우 1,300페

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임에도 김종건 교수는 “대중은 대중이 읽는 법으로 쉽게 읽으면 된다”는 말로 많은 독자들이 《울리시스》를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울리시스》가 아내 노라를 만난 1904년 6월 16일에 바치는 축혼가이며 사랑의 노래”인데도 “대중은 소문만 듣고 《울리시스》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울리시스》의 무대인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면, 6월 16일을 블룸스데이(Blooms Day)로 지키고 있으며, 한 방송사에서는 40여 명의 성우를 동원해 《울리시스》를 읽어준다. 《울리시스》가 난해하다면야 본 고장 아일랜드 사람들이 해마다 방송되는 것을 참고만 있겠는가. “주점 주인부터 시장통 아줌마까지 배꼽을 잡고 웃는 것을 블룸스데이에 일상적으로 목격할 수 있다”고 김종건 교수는 말한다.

또한 당대 아일랜드 더블린의 상점들 이름을 고스란히 사용했고 500여 명의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사용한 터라, 출간 당시 “내 이름은 어디에 나왔던데, 자네 이름은 없던가”라고 묻는 것이 인사가 될 정도였다. 지금도 더블린 시내의 200여개의 상점에는 《울리시스》에 등장한 상점이라는 동판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김 교수는 “당대의 소시민들이 함께 읽었고, 지금도 해마다 하루씩 사람들의 배꼽을 쥐게 하는 작품이 우리에게 어려울 리 있겠는가”라고 되묻는다.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의 본질인 모호성과 다의성을 읽어낼 학자들의 독법이 있는가 하면, 범인들이 읽을 수 있는 《울리시스》의 독법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 바보 같은 우직함으로 공부했지만 즐겁고 행복하다

몇 해 전부터 서울대 강의실 하나를 빌려 진행해 온 《울리시스》 독회가 이번에 발간한 책의 터전이 되었다는 김종건 교수는,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많은 소장 학자들이 마치 형사들처럼 번역을 예의 사찰하고 내공했지만 나로서는 그들의 젊음과 늙음을 엿바꾸며,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번 번역이 그들과의 공동 산물임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대중들이 기억해 주지도, 알아주지도 않는 《울리시스》를 새롭게 선보일 수 있었던 용기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아울러 연전에 선보인 《피네간의 경야》에서 얻은 언어 실험을 《울리시스》에 도입해 보고 싶었다고 한다.

“재주가 없어 바보 같은 우직함으로 공부했지만 즐겁고 행복하다”는 김종건 교수. 그에게 《울리시스》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와 함께한 시간들은 범인들로서는 누릴 수 없는 ‘삶의 정수’를 누리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움킨이의 글에서 “어찌 감히 여기서 원전의 주술과도 같은 신비를 기대할 것인가!”라고 겸손해 하지만, 제임스 조이스와 《울리시스》에 바친 그의 인생 반세기에서 ‘우리 시대 진정한 지식인의 표상’을 발견하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다. **한문**